

제9대 총장 임용 1순위 허향진 총장

1차 투표서 26표로 재선... 2순위에 김두철 교수
허 총장 “‘아시아의 명문’ 도약에 헌신하겠다”

제주대는 13일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로 허향진 총장, 2순위로 김두철 물리학과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 허 총장이 절차를 거쳐 9대 총장에 임용되면 제주대 사상 첫 연임 총장이 된다.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는 13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정책토론회 후 열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인 26표를 획득한 허향진 후보자를 1순위로, 10표를 얻은 김두철 후보자를 2순위로 선정해, 이들 2명의 후보를 차기 총장임용 추천자로 확정했다.

교수와 교직원, 학생을 포함한 학내인사 36명, 평의회 추천 5명 등 학외인사 12명을 비롯해 총 48명으로 구성된 총추위는 이날 오후 5시에 투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대는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들 2



명(1, 2순위)의 후보를 차기 총장으로 임용 추천할 계획이다. 이후 신원 조사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령 제가를 거쳐 제9대 총장으로 임명되며, 내년 2월 17일부터 4년 동안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허향진 총장은 △학술진흥연구비 단계적 증액 △'7+1(한 학기 해외수학 포함)' 프로그램 운영 △취업을 국립대 최상위권 달성 △학술연구비 및 국책사업 2000억원 시대 달성

△해외유학생 유치 확대 △대학발전기금 1500억원대 조성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연계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 △교직원 처우 개선 발전기금 조성 △교육대학 아라캠퍼스 이전 기반 조성 △아시아·태평양 섬 거점대학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허향진 총장은 “우선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로 저를 선택해 주신 대학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계속 신뢰를 주시고 다시 4년을 맡겨주신데 대해 무한한 영광과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허 총장은 또 “안정 속의 혁신이라는 대학 미래를 선택한 것은 지난 4년간의 재임기간에 축적된 대학 운영의 노하우와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해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시켜야 한다는 대학가족의 염원이 결집된 것”이라며 “받들어 함께하는 도전의 선봉에 서서 ‘행복한 대학공동체’를 만드는 데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제주산학융합지구 유치포럼’ 연다

오는 22일 산학협력단 주최... “도민들과 공감대 형성”

산학협력단(단장 이남호)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제주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제주창조경제의 밑거름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유치포럼’을 연다.

이날 기조강연에는 흥진기 산업연구원 팀장의 ‘정부의 산학융합지구 추진방향’, 흥진택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원장의 ‘충북산학융합지구의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발표에서는 한승철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제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학협력 수요조사’, 이남호 산학협력단 단장이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유치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산학협력단은 제주도 수출진흥본부, JDC사업관리본부와 MOU 체결식을 갖는다.

포럼 마지막에는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산·학·

관 협력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강봉수 JDC첨단사업자 부장, 김대환 제주대 가족회사협의회 회장, 김재훈 LINC사업단 부단장, 유행수 제주금융농공단지협의회 회장, 유영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임무지임의회의 회장, 현근협 제주도 미래전략산업과 과장이 참석한다.

한편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를 세워 기업과 대학들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산학협력을 유도해 고용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진일보한 형태의 산학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면서 “산학협력융합지구에 대해 도민들과 공감대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로 바이러스

제거기술 개발

이상백·목영선 교수팀

이상백·목영선 (생명화학공학과) 교수팀은 노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자외플라즈마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팀은 ‘농촌진흥청의 협동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이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지원사업의 연구과제는 ‘농산 가공 시설의 세척수 살균 및 공기정화 기술 연구’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농산물의 세척수 살균, 수중 미생물 살균 등 수처리공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용화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46대 총학생회 ‘진짜’ 51.54%로 당선



2014학년도 제46대 총학생회에 ‘진짜’ 선거운동본부가 당선됐다. 고광표 총학생회 당선자는 “학생들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당선자 “학생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겠다”

총대의원회 ‘우선순위’
총여학생회 ‘자기부터’
동아리연합회 ‘당.신.의’

고광표 총학생회 당선자는 “학우들의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짜’ 슬로건의 의미에 맞게 참된 총학생회가 되겠다”며 “진짜 총학생회는 말뿐인 총학생회가 아닌 학생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14학년도 제46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진짜’ 선거운동본부(정·고광표, 부·김무송)가 당선됐다. 또한 총대의원회에 ‘우선순위’ 선거운동본부, 총여학생회에 ‘자기부터’ 선거운동본부, 동아리연합회에 ‘당.신.의’ 선거운동본부가 각각 선출됐다.

총학생회 선거 마감결과 ‘진짜’는 51.54%의 지지율인 총 3837표를 획득, ‘하영Dream’의 총 3413표(45.84% 지지율)에 424표를 앞서 당선됐다. 이날 무효표는 195표(0.26%)다.

지난 15일 치러진 이번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9308명 중 7445명이 참여해 79.98%의 투표율을 보였다. 지난해 71.5%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치러졌지만 올해는 경선으로 진행된 것이 투표를 중대에 영향을 미쳤다.

김동현 기자

개방형 정보기술 융합과정 선도대학에 선정

미래창조과학부서 SW복수전공과정에 4년간 21억원 지원

제주대가 ‘개방형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과정’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중 학문간 융합을 통한 미래 SW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SW복수전공 및 SW부전공 프로그램 선도대학으로 제주대(복수전공 과정)를 비롯해 강원대(복수전공 과정)·서울대(부전공 과정) 등 3곳을 선정했다.

복수전공과정 선도대학은 4년간 21억원(우수과제 1년 추가지원 총 26억원), 부전공 과정은 3년간 8억원의 미래부 지원을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선정 대학내 ‘개방형 아이디어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학제간 융합과정 구성, 참여 학생의 선발·관리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산학협력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해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김근형(경영정보학과 교수) 총괄 책임자는 “이 사업은 학문간 융합과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실무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SW교육모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창조경제시대의 핵심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식 대표 발전기금 1억 기탁

김남식 청봉환경(주) 대표이사가 지난 18일 발전기금 1억원을 허향진 총장에게 전달했다.

대학은 이 기금을 인재양성과 건립기금과 학생들 해외봉사사업 지원금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제주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면서 “앞으로도 대학 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우리대학 기성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총동창회 부회장, 장학재단 이사 등으로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김남식 대표이사는 올해 2월



김남식 청봉환경 대표이사가 18일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제주대서 토목해양공학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만학도로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4학년도 제1학기 제주대학교 교수초빙공고

1. 초빙분야 및 인원

대학(원)	학과(부, 전공)	인원	채용분야
사범대학	언문홍보학과	1	매스커뮤니케이션전문
생명과학대학	생물산업학부 원예환경전공	1	조경학
해양과학대학	해양시스템공학과	1	해양물류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1	식물생태학
	생물환경복합학부 아동(장애)복지전공	1	아동복지
공과대학	식품생명공학과	1	식품가공
	에너지공학과	1	원자력시스템
수위과학대학	수위학과	1	말임상학
대학원	통역공학과	1	대형통역발진시스템설계
전임교원 소계		9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기공교수)	1	외과학(간, 담, 췌)
		1	응급의학(중환자치위, 환경응급)
		1	내과학(신장내과)
		1	내과학(소화기내과)
		1	내과학(혈액종양내과)
		1	정형외과학(술장 및 스포츠 손상)
		1	안과학(망막)
		1	피부과학(아토피, 건선)
		1	영상의학(영상)
		1	비뇨기과학(비뇨기종양, 배뇨장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기공교수)	1	민법
기공교수 소계		12	
합 계		21	21분야

2. 지원 자격

※ 공통 및 분야별 지원 자격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통 지원 자격

-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제주대학교 교수자격기준」 연구실적환산율 산출기준에 의거 교수초빙지원서 마감일 현재 교육·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영어강의 가능성(채용 시 1개 강좌 이상 영어강의 의무 실시, 단, 예·체능·민법(기공) 등 특수분야는 제외) - 공개발표 시 참조

나. 분야별 지원 자격

전 임 교 원

1) 매스커뮤니케이션전문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10. 12.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전문, 국제기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2) 조경학, 식물생태학, 아동복지, 식품가공, 원자력시스템, 대형통역발진시스템 설계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10. 12.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3) 해양물류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1편 이상을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4) 말임상학

-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전공분야 임상경력 5년 이상인 자(단, 박사학위 소지자는 임상경력 2년 이상).

- 최근 3년(2010. 12.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전문, 국제기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 수의신과학 강의 가능한 자

기 공 교 수

1) 정형외과학(술장 및 스포츠 손상) 분야

-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술장 및 스포츠 손상 분야에서 전임의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최근 3년(2010. 12.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전문, 국제기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 2) 외과학(간, 담, 췌), 응급의학(중환자치위, 환경응급), 내과학(신장내과), 내과학(소화기내과), 내과학(혈액종양내과), 안과학(망막), 피부과학(아토피, 건선), 영상의학(영상), 비뇨기과학(비뇨기종양, 배뇨장애), 핵의학

-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전공분야 지도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전임의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최근 3년(2010. 12.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전문, 국제기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3) 민법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10. 12.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전문, 국제기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3. 공채 세부일정 : 세부일정표 “붙임”

4. 임용조건 등

2014. 3. 1.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예정이며, 임용직명, 임용기간, 임용조건 등은 관계법령 및 본고 인사 관련규정에 의함. 단, 기공교수는 비전임교원으로 임용 예정이며, 임용직명, 임용기간, 임용조건 등은 관계법령 및 본고 인사 관련규정에 의함.

* 국립대학 교원은 2011년부터 성과급제 연봉제를 적용하여 임용됨

* 채용 시 1개 강좌 이상 영어강의 의무 실시(단, 예·체능·민법(기공) 등 특수분야는 제외)

5. 심사기준 및 절차 : 본고 전임교원신규채용전형절차에 의함.

6. 제출서류

가. 채용분야 공통

- 1) 제주대학교 교수초빙 지원서(붙임서류) 1부.
- 2)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원본 각 1부.
- 3) 외국어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반드시 첨부.
- 4) 경력증명서(교수초빙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원본 각 1부.
- 5) 연구실적목, 연구실적목 공동발표자 목록 각 1부(붙임서류).
- 6) 석·박사학위 논문 및 심사용 연구실적목 각 1부.

* 논문은 게재일자, 권(호), 게재처, 페이지 부여되어 출판된 학술지만을 인정함.

나. 채용분야별 제출서류

1) 말임상학 분야

-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2) 정형외과학, 외과학(간, 담, 췌), 응급의학(중환자치위, 환경응급), 내과학(신장내과), 내과학(소화기내과), 내과학(혈액종양내과), 안과학(망막), 피부과학(아토피, 건선), 영상의학(영상), 비뇨기과학(비뇨기종양, 배뇨장애), 핵의학

2013. 11. 1.

제 주 대 학 교 총 장

http://www.jejunu.ac.kr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사설

제주지역 현안과 지성인의 역할

산업혁명 이후 세계 각국은 급속한 산업화의 길을 걸었고, 이는 유한(有限)한 자원을 짧은 기간에 막대한 자원을 소비함과 아울러 환경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문제를 ‘지구환경문제’라 부르고 있다. 특히 기계문명과 인본주의 사상이 지배해 온 20세기 인류문명은 과다한 인공환경의 확대를 가져왔고 인간과 환경의 유기체적 삶의 연결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중앙적 세계관이 수용된 유기체적 세계관이 발달하면서 인간 대 자연의 대립이라는 서양의 이원론적 사고는 인간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생태학적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되었다. 최근 이러한 경향은 산업적 측면에서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른바 녹색산업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보다는 미래의 소중한 자원이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인 자연환경의 가치를 공유하고 보호해 가려는 실천적인 노력의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개발명목으로 시설물의 고도를 완화하거나 사업지구의 요건을 완화시킴으로써 특혜논란과 아울러 환경, 경관 훼손의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한라산과 비양도 케 이블카, 중간간 개발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 배경에는 결과에 집착하는 정책결정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거나 개발에 대한 보상심리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심각한 자연훼손의 결과가 인간에게 어떻게 되돌아오는가를 보여줬던 2007년 태풍 ‘나리’는 많은 시민들이 과거 개발정책과 개발방식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갖기 시작하였고 개발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전히 우리의 생활환경은 대규모 도로건설 사업과 대규모 고층아파트단지를 위한 택지개발에서 만들어 내는 거대하고 흉물스러운 인공구조물들이 유네스코에 의해 재평가된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모순된 개발정책과 환경행정을 하고 있다.

미래 학자, 레제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육식의 종말』을 통해 쇠고기를 매개로 하여 육식을 위해 인간의 과도한 개발과 소비가 얼마나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가 사이의 사람들의 삶이 불평하게 변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아름다운 땅 제주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해 제주사회가 경제발전에서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개발논리와 그 결과가 진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가, 진정으로 제주의 귀중한 자연유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하고 비판적인 가치성찰의 노력 없이 일방통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정의 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의 모순과 비합리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보게 하며 국가 혹은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방식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제주대와 제주대인은 지성인으로서 제주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형진		편집인·주관 김동윤	편집국장 김명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내선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단과대학 학생회 선출… 경상대·자연대는 경선 치러

간호대학은 보궐선거 예정

교육대학 22일까지 후보등록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지난 19일 치러진 가운데 경상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은 경선을 치렀다. 간호대학은 후보자가 없어 추후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교육대학 학생회는 오는 22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다음은 단과대학 선거결과이다.

△인문대학 ‘인able’ 정·장상우(국어국문학과 2), 부·한정훈(사학과 3) 후보가 총유권자 1098명 중 878명(79.96%)이 투표, 찬성 659표(75.06%), 반대 213표(24.26%), 무효 6표(0.68%)로 당선됐다.

△사회과학대학 ‘청사진’ 정·김대성(인문홍보학과 3), 부·김성은(행정학과 3) 후보가 유권자 802명 중 552명(68.83%)이 투표, 찬성 457표(82.79%), 반대 85표(15.40%), 무효 10표(1.81%)로 당선됐다.

△경상대학 ‘내일보다’ (정·임찬호 경제학과 3, 부·김우용 회계학과 2) 후보가 총유권자 1620명 중 1280명(79.01%)이 투표한 결과, 총 745표(58.20%)를 획득했다. 이들은 509표(39.77%)에 그친 ‘경쾌한’ (정·김형승 경영학과 3, 부·고석호 관광경

영 2)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무효표는 26표(2.03%)로 나타났다.

△사범대학 ‘사대공감’ 정·안세현(사회교육과 3), 부·김남규(윤리교육과 2) 후보가 총유권자 516명 중 456명(88.37%)이 투표, 찬성 268표(58.78%), 반대 181표(39.69%), 무효 7표(1.53%)로 당선됐다.

△생명자원과학대학 ‘유엔위’ 정·김진철(분자생명공학전공 3), 부·조상만(원예환경전공 2) 후보가 총유권자 624명 중 477명(76.44%)이 투표, 찬성 363표(76.10%), 반대 111표(23.27%), 무효 3표(0.34%)로 당선됐다.

△해양과학대학 ‘위해드림’ 정·강민우(환경공학과 3), 부·정성우(지구해양과학과 2) 후보가 955명 중 781명(81.78%)이 투표, 찬성 688표(88.09%), 반대 91표(11.65%), 무효 2표(0.25%)로 당선됐다.

△자연과학대학 ‘함성소리’ (정·고성필 물리학과 3, 부·고예은 전산통계학과 3) 후보가 총유권자 1215명 중 1095명(90.12%)이 투표한 결과, 총 551표(50.32%)를 획득해 519표(47.40%)에 그친 ‘‘공유하기’ (정·한권담 전산통계학과 3, 부·장은재 화학과 3)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무효표는 25표(2.28%)로 나타났다.

프리젠테이션 페스티벌 18일 열려

우수상 2팀에 상금 30만원

기초교육원 주최로

기초교육원(원장 현승환)이 주최하는 제2회 ‘JNU Presentation Festival’이 지난 18일 오후 3시 국제교류관 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학생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과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열렸다.

수상은 우수상에 JEE(팀장 오소진 전자공학과 3)과 Healing U(팀장 김범준 동물자원학과 2)이 공동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6성(팀장 고

윤정 생활환경복지학부 2)이 선정됐다.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기초교육원장상과 30만원,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대회 참가자들은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총 7개팀이 본선에 출전했다. 행사는 △제주대의 새로운 놀이 문화 방안-대학생이 제안하는 새롭고 다양한 놀이문화 및 교육프로그램 제안 △제주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존 및 활용방안-지속적인 환경보존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및 관광모델 제안 등의 주제로 발표했다.

심사자들은 “발표가 PPT에 국한됐고 짜맞추기 형식으로 진행된 점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강수빈 기자

법전원, 도의회와 업무협약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고호성)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희수)와 15일 의회 접견실에서 업무협약 연장을 체결하고, 자치입법 활성화와 제주지역 우수 법조인력 양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장상우 해양과학대학	김대성 자연과학대학	임찬호 공과대학	안세현 수의과대학	김진철 예술디자인대학
강민우	고성필	김영천	문태성	문진현
△공과대학 ‘역시’ 정·김영전(전기공학과 3), 부·현승탁(전자공학과 3) 후보가 총유권자 1325명 중 1011명(76.30%)이 투표, 찬성 870표(86.05%), 반대 133표(13.16%), 무효 8표(0.79%)로 당선됐다.				
△수의과대학 ‘비트윈’ 정·문태성(수의학과 1), 부·장성환(수의학과 1) 후보가 총유권자 264명 중 238명(90.2%)이 투표, 찬성 213표(89.5%), 반대 20표(8.4%), 무효 5표(2.1%)로 당선됐다.				
△예술디자인대학 ‘예술스디’ 정·문진현(미술학과 2), 부·강민선(미				
술학과 2) 후보가 유권자 461명 중 284명(61.6%)이 투표, 찬성 213표(75%), 반대 65표(22.9%), 무효 6표(2.1%)로 당선됐다.				
△아간강좌부 ‘조아야데’ 정·김민지(행정학과 야 2), 정다은(행정학과 야 2) 후보가 총유권자 145명 중 76명(52.41%)이 투표, 찬성 66표(86.84%), 반대 10표(13.16%)로 당선됐다.				
김명수 기자				

‘사회적경제’ 학술대회 이틀간 열려

사회적경제 활성화 논의… 경상대학 2호관 세미나실 등지서



‘2013 제주 사회적경제 학술대회’가 14일 경상대학 2호관 대강당, 세미나실 등지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신양(성공회대) 교수가 기초강연을 발표했다. 또한 한삼인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종합토론도 이어졌다.

‘2013 제주 사회적경제 학술대회’가 지난 14일·15일 이틀간 열렸다.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이사장 고부인 교수)이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경상대학 2호관 대강당과 세미나실 등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고부인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날 김신양(성공회대) 교수가 ‘나와 너의 살림을 지키는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기초강연에 나섰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삼인(법학

과) 교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제 및 효율성 분석을 통한 지속성장 전략 방안’, 김진영(사회학과) 교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발전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정모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센터장이 ‘포로보노(재능나눔)을 통한 사회적경제 향후 활성화 방안’, 배준호 울산뉴스투데이 편집국장이 ‘국내 언론의 사회적경제 보도 프레임에 관한 연구’ 등의 발표, 토론회가 이어졌다. 김명지 기자

미술학부 졸업작품전
문예회관에서 오는 22일까지

제38회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부(학부장 손일삼) 졸업작품전이 22일까지 제주도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지난 17일부터 열리고 있는 작품전에는 한국화, 서양화, 조소 전공에서 총 27개의 다양하고 개성 있는 작품이 출품됐다.

한국화는 △김민정의 ‘의도된 정돈’ △고지은의 ‘아름다운 기다림’ △김혜진의 ‘11010’ 등 12개 작품이 선보였다. 서양화는 △김현미의 ‘A study of hands’ △허민영의 ‘일상’ △백진이의 ‘흐트러진 시선으로’ 등 12개 작품이 전시됐다. 조소는 △강윤준의 ‘소나무’ △김유정의 ‘가나다름’ △김정은의 ‘Get Lucky’ 등 3개 작품이 마련됐다.

이번 졸업 작품전을 준비한 한 학생은 “밤을 새우면서 작품의 주제와 소재를 선정하고 창작물을 만들었다”며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미술학부(전화 754-2810) 서예린 기자

멀티미디어디자인 과제전
박물관서 오는 22일까지

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과재전이 18일부터 대학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공존’을 주제로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멀티미디어전공의 과제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2013 전국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광고디자인 은상 수상작, 미국 Spark 디자인 어워드 실버 수상작 등을 선보인다.

문의=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전화 754-3720)

이미도 작가 특강
22일 오후 교양강의동서

이미도 작가가 22일 오후2시부터 ‘창조적 상상력 복권의 ABC’를 주제로 특강한다.

기초교육원(원장 현승환)이 여는 특강은 두 시간동안 진행된다. 특강은 교양강의동에서 열린다. 신청은 20일까지 기초교육원 홈페이지(jile.jeju.ac.kr)를 통해 받는다.

이번 특강은 기초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로 여는 특강의 하나로 진행된다. 이 작가는 영화 번역가로 주로 할리우드 영화의 영어대사를 한국어 자막으로 번역해왔다. 문의=기초교육원(754-8265)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시정

← 제주여고

↓ 제주대

→ 아라중

학원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33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제59주년을 맞이하여

제33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합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공동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의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장 접수하며,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ac.kr로 제출해야 함
- 접수마감일시 : 2013년 12월 9일(월) 18:00까지
- 시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40만원
-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 (☎754-2278·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 발표 : 제주대신문 2014년 신년특집호 (2014년 1월 1일 발행 예정)

신문방송사 제주대신문

사람들

안기중·박은진 교수	강민수 교수	양원찬 박사 초청 강연
지역인재육성멘토상 수상	‘경주말의…’ 역서 출간	의녀반수 김만덕 생애…’
안기중(공학 교육혁신센터장 컴퓨터공학과)· 박은진(식품생명공학과) 교수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인 지역인재육성멘토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차세대 여성공학자를 키우는 여고생 공학캠프 등에 대한 공헌이 큰 점을 인정 받았다.	강민수(동물생명공학전공) 교수는 ‘HORSE WATCHING 경주말의 행동과학’ 역서 개정판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신체 각 부위로부터의 사진, 애정표현과 수명, 영역성 및 경마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여교수협의회(회장 박경숙) 주최로 20일 오후 2시 국제교류관 대회의실에서 양원찬 박사가 ‘의녀반수 김만덕 생애와 현대적 조망’을 주제로 강연한다. 20일 양 박사의 강연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양원찬 박사는 현재 재외제주도민 총연합회장, 김만덕기념사업회 대표 등을 맡고 있다.
강철후 전공의 신경과학 우수발표상 수상	송필순 석좌교수 AOSP Award 수상	최운아 NXCL 대표 20일 문화광장 강연
강철후 제주대학교병원 전 공의가 최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신경과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파킨슨병 환자에서의 수술 위험도’란 주제로 우수발표상(책임교수 신경과 송숙근)을 수상했다.	송필순(생명공학부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석좌교수가 지난 10일부터 4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광생물학회(AOSP)에서 대상 격인 ‘AOSP Award’를 수상했다.	최운아 NXCL 대표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제주대문화광장 ‘넥스, 제주를 담다 그리고 담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그는 현재 넥스컴퓨터박물관 관장으로 재직 중이다.

교수시론

동계방학 현장실습 활성화를 기대하며



임재연
통신공학과 교수·취업전략본부장

“

제주대는 현장실습에 필요한

제반여건 잘 갖춰져 있어…

현장실습에 필요한 예산지원은 물론

가족회사 및 우수기업체 발굴 통해

학생이 원하는 실습 되도록 최선을

”

어느덧 2학기도 한달이 채 남지 않았고 다가올 동계방학을 어떻게 유익하게 보낼까 심사숙고하는 시점이 되었다. 아르바이트나 여행, 외국어공부 등으로 학기중에 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업해야 한다’는 청년취업의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볼때 이번 동계방학은 현장실습으로 사전 취업준비를 해 보는게 어떨까 제안해 본다. 흔히들 청년취업의 가장 큰 문제점을 기업과 구직자간의 미스매치문제라고들 한다.

이는 급여 등 현실적인 조건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관련 기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학문분야를 산업현장에서 체험하는 제도로 기업과 학생들의 취업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육성 및 취업연계 증진을 목적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실무실습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에서는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두어 LINC사업단과 취업전략본부에서 공동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LINC 사업 참여학과는 LINC 사업단을 통해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그 외 학과는 취업전략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 중요성에 비추어 현장실습 전에 기업수요조사와 학생매칭과정을 통하여 기업수요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 현장실습 관련 필요한 사전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현장실습 중에는 실습기업에 반드시 1명의 지도교수 또는 산학협력교수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실습상황 및 애로점을 점검하고, 담당자 또는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효과적인 현장실습방안 등을 보완하게 된다. 실습 후에는 학생들 입장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하고 있다.

제주대학교의 최근 3년간 현장실습 실적은 2010년에는 25개 기업에 105명, 2011년에는 163개 기업에 332명, 2012년에는 174개 기업에 334명이 참여했다. 2013년도 하계방학기간 중 현장실습 실적은 165개 기업에 304명이 LINC 사업단 또는 취업전략본부를 통해 현장실습을 수행하였으며, 동계방학 기간 현장실습을 통해 누계 500명을 목표로 현재 모집 중이다. 2014학년도에는 700명 이상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제반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한학기는 현장실습을 필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장실습을 수행한 졸업생의 경우 취업률이

평균 15%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평소 지원하고 싶은 곳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여 기업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익히고, 기업에서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으로 인해 취업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및 중소기업 인력 지원을 위해 현장실습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한다. 중소기업과 취업을 전제로 현장실습 이수 또는 이수예정인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장려금(대학기 2백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졸업 후 지원받은 학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1회, 6개월) 해당기업에 취업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제주대학교에서는 7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기업으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점차적으로 이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제주대학교는 현장실습에 필요한 제반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본다. 현장실습에 필요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가족회사 및 우수기업체 발굴 등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으로의 성공적인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하니 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동문칼럼

많이 읽고 보고 생각하라



양원철
윤리교육과 89학번
오현고등학교 교사

직장 생활에 파묻혀 바쁘게 사는 삶이다. 반복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려니 책임져야 할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온다. 점점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의지와 용기가 약해지는 게 아닌가 하고 반성한다. 이런 삶을 사는 평범한 직장인이 패기발랄한 청춘들에게 인생의 멘토같은 자격으로 이야기를 전하려니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다. ‘동네 삼촌’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읽었으면 한다.

“나는 누구일까?” 먼저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았으면 한다. 이것은 평생 동안 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지난 3월 신입생으로서 포부를 그리면서 했으리라. 그러나 대학 생활이 일상적인 반복으로 정착할 즈음이면 잊어버리기 쉽다. 고등학교 때까지 주변에서 강력한 자극을 받는 환경에서 공부해 본 자신들에게 더 이상 재촉질이 가해지지 않아 그런가 싶다. 이제야말로 내면에서 우러나는 동기가 필요하다. 냉정하게 나의 모습을 진단해서 미래상을 그려야 한다. 그러면 자신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지 않을까?

학과 공부는 기본이다. 자신이 희망한 학과이며, 적성과 흥미에도 잘 맞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다. 얼마나 공부가 재미있고 즐거울까! 그러나 누구나 이처럼 잘 맞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방향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다. 언제나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조건과 상황이란 없다. 극복해 나갈 뿐이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속한 학과에서 전공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공 공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켜 준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감동이나 울림이 없으리라.

감성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지금도 대학을 ‘이성의 전당’이라고 표현하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세련된 용어가 따로 있나 싶기도 하지만, 대학은 ‘이성’을 훈련시키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성’을 훈련시키는 활동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글쓰기’가 아닐까 싶다.

대학 생활은 글쓰기로 시작해서 글쓰기로 끝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나는 이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여러분이 청춘인 것은 뜨거운 가슴이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간혹 뜨거운 가슴이 지나쳐 실수로 나타내기 쉬운 청춘이기도 하다. 더욱이 요즘은 감각적인 것이 각광받는 흐름이 아닌가. 뜨거운 가슴을 지니고 있더라도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고 논리가 없다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또 냉철하고 논리적이며 빈틈없이 표현됐다 하더라도 인간적이지 않으면 역시 감동이 없다.

여기까지 몇 가지로 열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는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들어서 생각(되새김질)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열거한 조언들이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다. 어쭙잖은 인생 선배가 당연하고 일반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한 듯하다. 하지만 평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교훈들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청춘들이 잘 이해해주었으면 한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소속, 게재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000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press@jeju.unc.ac.kr

독자기고

학생선거에 거는 기대와 우려



강민호
수학과 4

선거 기간에는 버스에서 내리는 그 순간부터 강의실에 들어가기까지 엄청난 노래 소리와 우렁찬 인사소리를 들을 수 있다.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등 중앙자치기구와 단과대 학생회에서 자신들을 뽑아 달라고 한다.

이를 위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하는 소리가 들린다.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선거기간은 항상 시끌시끌하고 활기차다. 선거 시준에 맞춰 선거에 관해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홍보다. 선거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거운동본부를 어렵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활기차고 우렁찬 소리는 강의시간에는 상당히 거슬린다.

넓은 강의실에 교수님의 목소리를 뒤쪽까지 들리는데 버거움이 있다. 그런데 선거 유세 소리는 교수님의 목소리를 잡아먹는다. 앞쪽에 앉은 사람도 인상이 찌푸러지는 상황인데 뒤쪽에 앉은 학생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는다.

두 번째는 서로의 대한 배려이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는 두 팀이 출마했다. 그리고 두 팀은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항상 말이 많았던 라이벌 구도는 올해에 들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토론회에서도 항상 ‘저

팀에서는 이것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팀에서는 이것이 됩니다!’ 라는 서로 혈투는 익숙한 상황이 올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한 일화로 ‘하영Dream’ 선거운동본부에서 춤 연습을 늦은 시간까지 힘들게 연습했다고 한다. 우연히 ‘진짜’ 선거운동본부에서 춤 연습하는 ‘하영Dream’에게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줬다고 한다. 앞으로도 전처럼 싸우고 혈투는 것이 아니라 올해처럼 선의의 경쟁이 계속 됐으면 한다.

세 번째는 각 팀과의 의사소통이다. 한 선거운동본부는 시청각실과 전시실을 스타디움으로 바꿔서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하지만 실제로 시청각실과 전시실은 동아리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동아리연합회에서는 이 공약에 대해 어이없다는 입장이었으며 학생복지과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각 팀끼리 전혀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서로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모르기에 나타난 상황으로 보인다.

선거시즌에는 항상 많은 말이 돌아다닌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빈번하게 나뉘고 조금 더 깊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들의 정책을 대하여 많은 토론이 이뤄지고 어느 팀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든다. 올해 선거는 더욱 흥미진진하고 앞으로가 기대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정치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부성필
언론홍보학과 3

어느 학생이든 강의의를 듣다가 교수님께서 신문물을 읽으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구독을 처음하려는 학생은 보수라 말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진보라 말하는 한겨레, 경향신문 중에 고민을 하게 된다. 어쨌든 그 두 개의 창문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자신이 어떤 성향이던 간에 학우들이 ‘보수와 진보’ 그 둘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의미가 변질되고 왜곡된 흑백논리가 되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전적 의미로 보수는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는 것, 진보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 서로에 대한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진보측에서 보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특권층’, ‘부패한자’, ‘민주적이지 않다’ 등으로 보고 보수측에서 진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좌파’, ‘반항아’, ‘이상론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물론 이 시선들은 잘못된 인식과 극단적인 시선이다. 여기에 또 좌익과 우익, 좌파와 우파가 생긴다. 좌파는 급진적인 정치세력, 우파는 점진적인 정치세력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보수와 진보는 무엇인가? 세계적으

로 유명한 사건들을 예로하면 영국의 산업혁명과 이로 인해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것은 진보의 것이다. 그것이 가져다 준 자본주의는 현재 사람들에게 보수의 상징이 되었지만 당시로서는 대단히 진보적인 일이었다. 보수와 진보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나는 진보에 속해 있는 것 같다. 언론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부터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기사들을 보고 실망도 많이 하고 나쁜 신문이란 생각을 갖게 되서 인지도 모른다. 그러다보니 한겨레, 경향신문을 자주 읽게 되었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인식과 사회적인 약자층에 내 개인적인 가슴 아픈 감정 등이 뒤섞이고 기자가 된다면 사회적 약자층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가슴 따뜻한 기자가 되고 싶었다. 내 생각이 진보적인 성향으로 가게 된 계기였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진보의 정치성향이다 그런 것은 없다. 한국사회에 정치적인 보수와 진보는 발전이 없는 싸움만하기 때문이다. 정치에는 진보든 보수도 정작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와 대결에 목숨을 건다. 야당이 여당의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거나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 뚝 떼고 반대만 한다.

이제 한국정치도 변해야 한다.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여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유용한 장점을 모아 나중을 위한 초석으로 삼고 과거 실패한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성공한 것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

라운은 ‘즐겁다’는 의미의 순 우리말입니다.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라운그룹은 제주의 기업입니다.
라운가족은 현지 법인화를 통해 지방세정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라운 임직원 369명 중 97%인 358명이 제주출신입니다.
모기업인 라온건설도 제주현지 법인입니다.

연간 20억원에 이르는 라온골프클럽, 라온프라이빗타운
농·축·수산 식자재도대부분 제주산입니다.

라운그룹은 라온골프클럽과 라온목장, 더마파크, 라온프라이빗타운,
라운호텔&리조트, 라온투어, 라온명품관 등의 관광사업을 통해
제주 서부권을 국내 최대 체류형 휴양지로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라운가족은 앞으로도 제주경제 활성화의 디딤돌로써,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RAON GOLF CLUB

라운골프클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18번지
TEL 064-795-1000 FAX 064-795-1001

RAON PRIVATETOWN

라운프라이빗타운

라운프라이빗타운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금능남로 127
TEL 064-795-8008 FAX 064-795-8051

The馬PARK

더마파크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월림리 산8번지
TEL 064-795-8080 FAX 064-795-8081

RAON名品館

라운명품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7
TEL 064-795-3200 FAX 064-795-3209

RAON TOUR

라운투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18번지
TEL 064-796-9651 FAX 064-796-9654

공간은 현대의 제주사회를 어떻게 재생산하는가

학술기고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초래한 분절화된 공간과 파편화된 의식



서영표
사회학과 교수

근대화가 제주에 가한 충격은 매우 크다. 한국의 근대화가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제주의 근대화는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생적으로 강요된 근대화프로젝트에 의해 추진되었다. 주변부인 한국의 '주변부'로 급격한 자본주의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는 육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게 된다. 불균등한 발전 과정에서 제조업 기반 없이 관광산업 중심의 근대화가 추진되었던 것이다.

근대적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제주인이 바라보는 제주의 공간과 관광객이 바라보는 제주는 같지 않았다. 제주인에게 제주는 삶의 공간이자 고향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제주라는 구체적 장소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귀속감은 제주를 떠난 제주인들에게도 기억의 흔적으로 남아 고향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게 했다. 반면에 관광객에게 제주는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소비하는 대상이었을 뿐이다. 물론 그들이 화폐를 지불하고 구매하기 원했던 소비의 대상은 질을 가진 구체적 공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행대행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품으로서의 관광과 여가였을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관광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는 제주의 공간적 질서에 외부적 충격을 가하면서 합리성의 이름으로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만든다. 삶의 공간과 노동의 공간으로서 두께를 가지고 있었던 공간을 밀어버리고(평평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 위에 도시계획과 건설업자가 재현해 낸 공간이 들어선다. 두께가 없어지고 평면화되었기 때문에 공간은 부분으로 나누어 거래가능하게 된다.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와 상가는 '평당 얼마'라는 교환 가능한 부분들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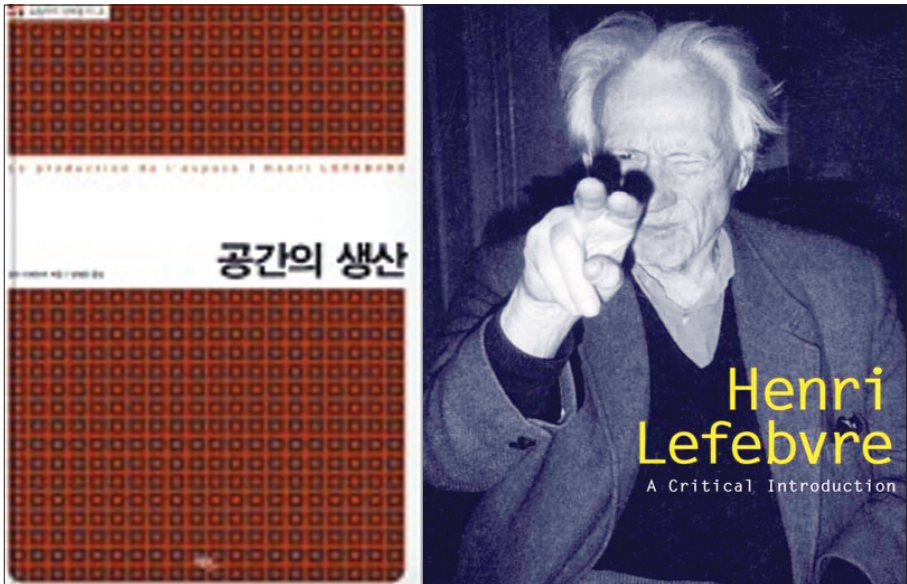
이러한 외부적 충격은 새로운 공간적 실천의 양식을 불러오고 이러한 실천은 서서히 사람들의 의식을 침식한다. 한편으로 여전히 강한 장소귀속감과 공동체적 정신이 남아 있지만 이러한 의식이 발휘되는 것은 추상적 수준에서 제주라는 공동체를 염두에 둘 때 뿐이다. 삶의 공간으로 내려오면 사람들은 공동체와 상징, 기억, 체험이 혼재된 두

께가 있는 공간을 고려하기보다는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공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일종의 분열증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구체적 공간보다는 추상적 공간에 치우친다. 추상적 수준에서는 자연의 보존과 공동체의 이익을 말하지만 구체적 수준에서는 개인의 이기적 이익과 개발 논리를 앞세운다.

자본주의적인 공간 재현에 기초한 폭력은 하나의 장소로서 제주가 가지는 중심성과 상징을 무너뜨렸다. 관덕정과 관아를 중심으로 제주성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관덕정은 군사훈련장으로 건축되었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의 무대였으며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상징성 또는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근대적 개발은 도시의 중심을 '날선 칼'과 같은 도로로 절단했다. 사람의 시선, 감각, 속도감이 아닌 자동차의 동선과 속도에 맞추어진 도심은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공간일 뿐이다. 많은 사람이 관덕정을 바라보고 지나치지만 그 앞에 모여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공간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상호작용의 끈은 끊어지고 도로와 주차공간으로 격리된, 자동차라는 이름의 철갑으로 보호되는 철저하게 개인화된 인간들이 도시 안에 공존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도시 안에서 자동차를 세워두고 모이는 공간은 대형 쇼핑센터이다. 쇼핑센터 그 자체가 자동차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건설된다. 하지만 쇼핑센터에 모인 사람들은 여전히 철저하게 고립된 개인들일 뿐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소비하는 기계에 불과하고 고도로 계산된, 우리의 소비에의 욕망을 일깨우도록 배치된 동선을 따라가면서 구매행위를 할 뿐이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시는 스쳐지나가는 자동차의 동선이기에 지극히 평면적이다. 공간의 압축과 평면화는 운전석 앞에 놓인 네비게이션을 통해 완성된다. 네비게이션이 보여주는 공간은 지극히 평면적이고 직선적이다. 지도는 자동차가 진행하는 경로를 중심으로 운전자의 시각으로부터 펼쳐진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도로에 비해 건물과 거리, 사람들은 부차적이다. 전근대 시대의 지도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상상에 의해 제작되었지만 그 지도 위에 펼쳐진 악마와 천사, 천국과 지옥의 모습은 전통사회의 재현공간이 가진 삶의 두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지도는 그 깊이를 상실한 것이다. 지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부피와 질량을 잃고 파편화 되어 버린 것이다.

중심의 상실과 상품으로서의 공간의 타락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1970년대 계획도시로 생겨난 신제주다. 신도심은 처음부터 상징과 중심성을 가지지 않았다. 평면화된



자본주의적인 공간 재현에 기초한 폭력은 하나의 장소로서 제주가 가지는 중심성과 상징을 무너뜨렸다. 이 글은 '공간의 생산'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제주의 공간을 논의한 것이다. 오른쪽은 '공간의 생산' 저자인 앙리 레페브르.

대지 위에 세워진 대형쇼핑센터와 아파트는 생산물과 상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작품으로서의 도시,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흔적과 기억이 공존하는 공간일 수 없었다. 거리는 직선으로 주택가와 상가를 가로지른다. 사람들은 이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주변 경관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들은 지역주민 또는 시민으로서 공간을 해석하고 생산하지 않는다. 단지 소비자로서 공간을 구매하고 소비한다. 신도심의 랜드마크가 두 개의 대형 쇼핑센터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도청과 도의회 등 공공서가 밀집된 장소 또한 상징과 중심이 되지 못한다. 사람들의 동선과 시선으로부터 격리된, 삶과 유리된 정치엘리트 집단들만의 장소일 뿐이다. 가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몸에 감각의 흔적을 지우고 그 위에 욕망의 지도를 그린다. 평당 얼마로 분절화된 토지와 아파트에 대한 욕망이 주입된다. 애초에 공간은 화폐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감각, 기억, 상징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잘라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잘라서 팔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감각, 기억, 상징을 씻어내고 서로 교환 가능한 부분들을 절단해야 한다. 하지만 일단 절단은 공간의 절단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간은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다음세대를 생산하고 죽음을 향해가는 모든 것들이 촘촘히 뒤엉켜 있는 덩어리이다. 결국 공간의 절단은 우리의 삶을 절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단과 분절화가 우리 몸의 경험과 기억을 모두 지울 수는 없다. 우리는 소비하는 기계, 생산하는 기계, 영혼 없는 사이보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그 어떤 추상적 지식으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리듬을 통해 욕구와 필요를 표현한다. 그리고 그러한 욕구와 필요는 오랫동안 동료인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매개되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문화적 무의식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가라앉아 있다.

절단된 공간과 추상화된 지식, 상품소비를 통해 부과된 평면적 정체성의 빈틈을 비집고 몸의 리듬과 집합적 기억이 솟구쳐 오른다. 추상적 지식과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그 이면에 가라앉아 있는 기억과 감각은 일상을 사는 개인들의 의식 속에서 충돌한다.

이러한 충돌은 공간에게 부피와 두께를 되돌려주려는 몸짓으로 드러난다. 도심을 재생해야 하는 것이다. 재생된 도심은 역사적 흔적과 기억(성터, 박물관 등), 기념물, 공원과 쉼터, 동네 상징과 주택가가 골목으로 연결된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 차를 위한 도로로 절단되어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서로 뒤엉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리와 골목은 아이들의 놀이터이며 이 아이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어른들의 시선과 보호 아래 지켜질 수 있다.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욕망을 만들어내는 상품전시회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거닐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문화와 역사를 공감하면서 능동적으로 소비한다. 물건사기는 사람들과 만나고 인사하고, 말을 건네는 행위와 분리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쇼핑센터는 오직 소비하는 행위를 위해 만들어진 추상적으로 계획된 공간이지만 재생된 거리에는 쇼핑센터에서는 할 수 없는 말 건넌과 흥정이 있다.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닌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위와 규범 또는 이상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분리되고 파편화되어 소비하는 기계로 조립된 우리 몸이 저 깊은 곳으로부터 열망하고 있는 체험과 감각에 호소할 뿐이다. 몸의 저항인 것이다. 몸의 저항은 소비사회의 욕망으로 완전히 지울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러한 호소를 어떻게 실천하고 실현하는가이다. 제주민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인 것이다.

» '제주등대 해양사적 의미망과 미래적 전망' 학술대회

역사문화 가치 갖춘 '우도등대' 단순한 관광요소로 봐선 안돼

'제주등대의 해양사적 의미망과 미래적 전망' 학술대회가 지난 15일 해양과학대학 4호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한국항로표지기술회회가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1부는 최광식(해양생명과환경공학) 교수의 사회로 김종현(배재대) 교수, 주강현(탐라문화연구원) 석좌교수, 김동진(사학과) 교수, 백종진(사학과 박사과정)씨, 강은정(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씨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이병길(토목공학)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종현(배재대) 교수는 '한국 등대의 근대적 성격과 그 정체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등대는 한국 최초의 콘크리트 건물로 목조건축과 다른 등대건축의 새로운 재료와 기술 도입, 다른 형태에 주목했다. 또 우리가 제주등대를 어떻게 보존하고 가치를 높일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등대를 단순한 관광요소만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며 "등대의 가치를 조망하고 삶의 요소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등대의 근대 해양사적 의미망'을 주제로 주강현 석좌교수가 발표했다. 주 교수는 "한반도 등대의 역사는 서구의 산업혁명시대의 징표와 다른 양상으로 발전했다"며 "우리의 등대는 독립적 근대국가와 무관하게 제국의 배를 인도하는 '제국의 불빛'이라고 말했다. 이어 팔미도 등대를 시작으로 생겨난 우리나라의 등대를 일제 침략의 요동치는 현장을 지켜본 '근대의 총아들'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또 "제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

는 산지항보다 훨씬 전 우도에 등대가 들어선 것은 제주등대의 출발이 한국인과 무관하게 우도 외곽을 돌아서 인천이나 중국으로 향하던 배길이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백종진(사학과 박사과정)씨는 '제주도대들의 분포와 성격'에 대한 발표에서 "1910년대 이후 제주 곳곳의 해안마을에는 '도대' 혹은 '도대불'이라 불리는 제주도의 옛 등대가 마을주민과 어민들에 의해 축조됐다"며 "제주도에 축조됐거나 남아있는 옛 등대는 제주시 22기, 서귀포 5기가 조사돼 총 27기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옛 등대 초기에는 돌을 사용했으나 이후 돌과 시멘트, 철근을 재료로 축조됐다"며 "제주등대는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 의해 축조된 현대식 등대와 목적과 관리방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등대의 해양문화관광적 발전방향'을 주제로 강은정 연구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강 연구원은 '해양문화'의 생소함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등대의 문화관광적 가치를 발표했다. 그는 "등대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다"며 "최근에는 등대 생활체험 등 해양문화체험과 지역특색을 갖춘 조형등대 등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연구원은 "우도 등대는 자연경관과 주변에서 음악회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도 방문객이 저조하다"며 "등대공원의 시설적인 제한과 홍보 부족, 편의시설 부족 등 문제를 보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태 기자



15일 해양과학대학 4호관 세미나실에서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 등의 주최로 '제주등대의 해양사적 의미망과 미래적 전망' 주제의 학술대회가 열렸다.

2014 제주대 대학원 풍력공학부 신입생 모집

제주대가 당신의 꿈을 지원합니다.

1. 석사과정 월 70만원, 박사과정 월 100만원 내외 연구비 또는 장학금 지원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2. 우수 대학원생에게 국외 유수대학 학점교류 지원(유럽, 미국, 일본 등)
3. 우수 대학원생에게 국내외 인턴십 지원(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네덜란드 EGN, 독일 Lahmeyer, 영국 Lomax 등)
4. 제주도 풍력실증사이트에서의 현장연구
5. 24시간 개방 S/W 구축 대학원생 전용강의실 운영

당신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 ▶ 원 서 접 수 : 2013. 11. 19(화) 10:00 ~ 11. 22(금) 17:00
- ▶ 접 수 처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홈페이지 <http://www.uwayapply.com>
- ▶ 선 발 방 법 : 필기 및 면접고사
- 필기고사 : 2013. 12. 13(금) 10:00 ~ 13:20
- 면접고사 : 2013. 12. 13(금) 15:00 ~
※ 출신학과 관련 없이 지원 가능
※ 공인 영어성적 우수자 우대(면접시 제출)
- ▶ 모 집 인 원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명 (일반전형)
- ▶ 모 집 학 과 : - 석사과정 : 풍력공학부(풍력기계시스템전공, 풍력전기·제어시스템전공, 풍력해양·토목공학전공) 3개 전공
- 박사과정 : 풍력특성화협동과정
- ▶ 졸업 후 진로 : - 한국남부발전,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대한전선, 한국전력 등 국내 대기업 및 국가 공기업 취업(풍력대학원 석·박사 졸업생 취업 자료에 근거함)
- ▶ 문 의 처 : -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754-2045
- 풍력특성화협동과정 행정실 754-4400
- 풍력특성화협동과정 홈페이지 <http://gwe.jejunu.ac.kr>



신재생에너지 답은 풍력발전입니다

육해상풍력에 특화된 석박사 인재양성,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시작됩니다.

